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내일 금요일은 경제 정보가 없습니다.

[미국 경제]
- WSJ: 현재 미국 노동 시장은 특이하다... 실업률 상승, 해고는 낮아
- WSJ: 미 남성 중심의 산업에서는 일자리는 줄어
- CNBC: 소매 업계 일자리는 늘어난다

[미국 금융]
- CNBC: 중동 평화 회담 흔들려 미 국채 금리 상승

[이란 전쟁]
- Bloomberg: 트럼프, 평화방안 이란 답신 거부

[오일]
- CNBC: 브레트유 103달러 돌파…평화 방안 거부돼
- WSJ: 가주 가솔린 가격 6달러 16센트…향후에도 불확실

[트럼프 관세]
- NYT: 연방 정부 10% 보편 관세도 불법 판결…상호 관세 환급은 11일부터

[주택]
- YahooFinance: 4월 기존 주택 판매, 예상보다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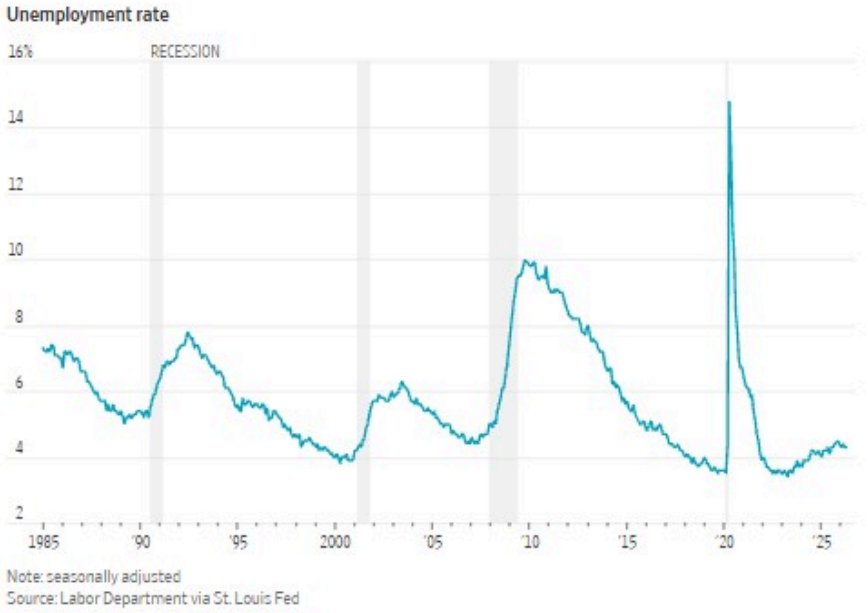
[미중 관계]
- YahooFinance: 트럼프, 중국 방문해 관세와 호르무즈 개방 논의할 듯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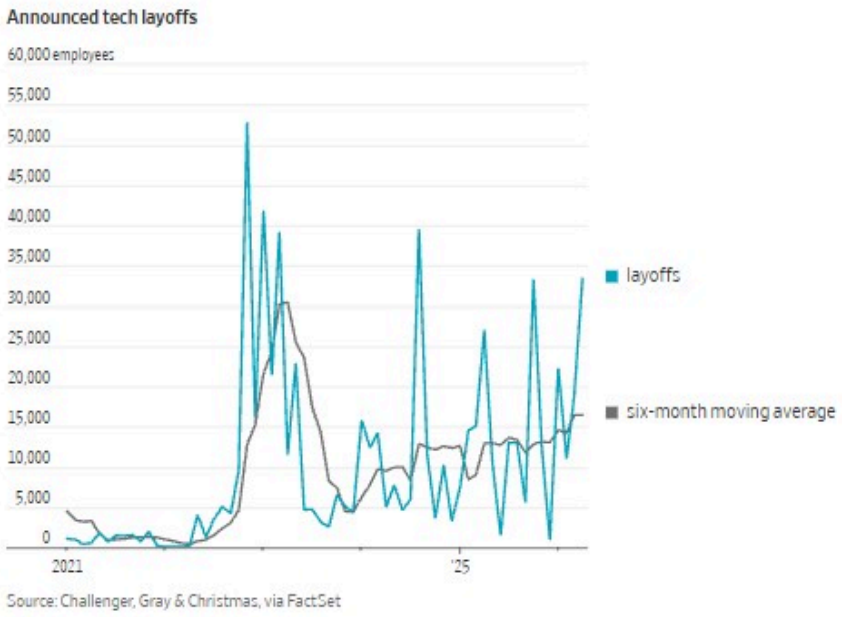
[미국 경제]

WSJ: How to Make Sense of This Strange Job Market
현재 미국 노동 시장은 특이하다... 실업률 상승, 해고는 낮아

- 4월 미 일자리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. 현재 실업률 상승과 해고는 낮다: 실업률은 4.3%로 완만히 상승했으나, 실제 해고나 실업수당 청구는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.
- 채용과 이직이 멈춘 '정체된 시장':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AI의 등장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, 일자리 이동이 거의 없는 '고용 정체' 국면에 진입했다. 신규 구직자의 고통과 심리적 불안: 나가는 사람도 뽑는 사람도 없다 보니 사회 초년생과 이직 희망자들의 처지가 어려워졌으며, 시장을 바라보는 대중의 부정적 체감도는 높아졌다.
-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: 고령화로 인한 은퇴자 증가와 이민 제한 정책이 맞물리면서, 일할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가 채용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.



Meanwhile, there have been some eye-catching layoffs from companies like Meta. According to outplacement firm Challenger, Gray & Christmas's tally, announced job cuts in the tech sector ran 33% higher in the first four months of this year versus last year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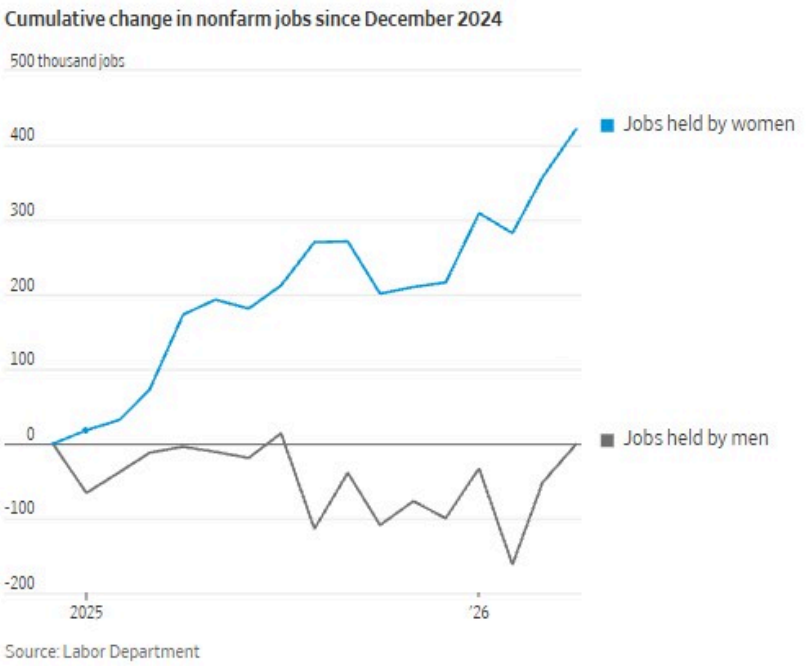


기사

WSJ: A Changing Job Market Leans Against Men
미 남성 중심의 산업에서는 일자리는 줄어

- 성별에 따른 미 고용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. 지난 1년간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등 여성 중심 산업에서 생긴 반면에 제조업과 운송업 등 남성 중심 산업은 관세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며 타격을 입었다.
- 특히 여성의 학위 취득률이 남성을 크게 앞지르면서 고학력 중심의 고용 구조가 이러한 성별 격차를 더 고착화하고 있다.
- 근본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가속화와 엄격한 이민 제한 정책이 맞물려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정체된 상태다. 이러한 노동 공급 부족과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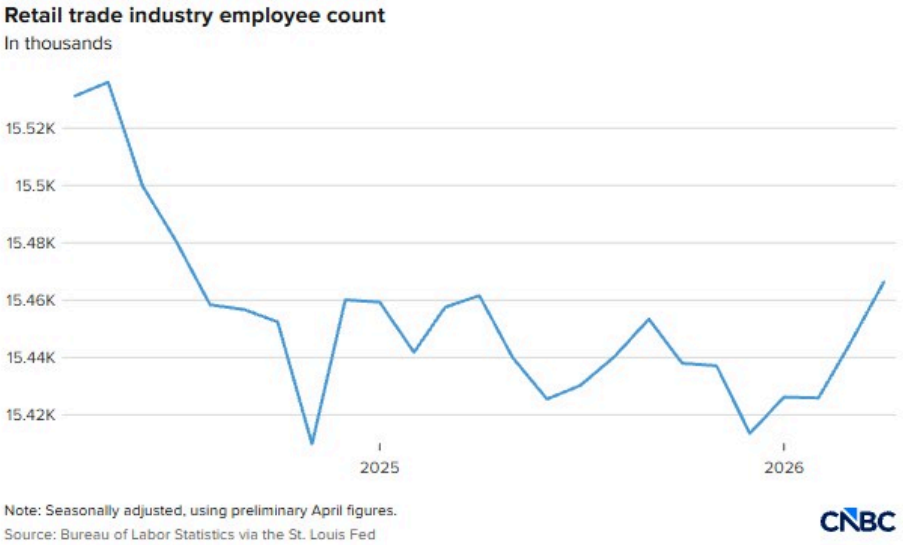
적 변화는 낮은 채용률과 맞물려 전례 없는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.



기사

CNBC: Retailers are on a hiring spree. But consumers are sending warning signs
소매 업계 일자리는 늘어난다

- 소매업계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쇼핑에 힘입어 경제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채용을 대폭 늘리고 있다.
-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, 4월 소매업 일자리는 약 2만 2천 개 증가하며 전체 고용 성장의 5분의 1 가까이 차지했다. 현재 소매업 종사자는 약 1천5백50만 명으로, 이는 2024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.
- 소비자들은 이란과의 전쟁, 유가 상승, 가파른 인플레이션,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속에서도 계속 지출하고 있다. 최근의 탄탄한 소비 활동으로 소매업체들의 인력 확충도 계속되고 있다.



기사

[미국 금융]

CNBC: Treasury yields move higher as Middle East peace talks falter
중동 평화 회담 흔들려 미 국채 금리 상승

- 이란 전쟁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이번 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회담,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미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.
- 시장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4.378%로 올랐고,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3.912%를 기록했다. 30년물 금리 역시 4.959%로 상승하며 시장의 긴장감을 보여주었다.
- 국채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며 1베이시스 포인트(bp)는 0.01%포인트를 의미한다.

SYMBOL	COMPANY	YIELD	CHANGE
US10Y	U.S. 10 Year Treasury	4.388%	+0.024
US1M	U.S. 1 Month Treasury	3.66%	-0.005
US1Y	U.S. 1 Year Treasury	3.756%	+0.018
US2Y	U.S. 2 Year Treasury	3.92%	+0.027
US30Y	U.S. 30 Year Treasury	4.967%	+0.02
US3M	U.S. 3 Month Treasury	3.689%	+0.004
US6M	U.S. 6 Month Treasury	3.729%	+0.023

기사

[이란 전쟁]

Bloomberg: US, Iran Far Apart in Talks to End War and Reopen Hormuz
트럼프, 평화 방안의 이란 답신 거부

-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안을 두고 여전히 큰 입장 차를 보인다. 트럼프는 이란의 평화안 답신 내용에 수용 불가능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.
- 이란 측은 미 해군의 해상 봉쇄 해제와 제재 완화, 호르무즈 통제권 유지를 요구하며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주장했다.
- 협상 결렬로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서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수출이 차단됐으며, 글로벌 에너지 공급로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신뢰도 또한 장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.

기사

[오일]

CNBC: Brent oil tops $103 after Trump dismisses Iran's peace proposal response
브레트유 103달러 돌파…평화 방안 거부돼

-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갈등이 "끝나지 않았다"고 경고하며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이 확산되자 국제 유가가 오늘 월요일 일제히 상승했다.
- 여기에 트럼프도 전쟁 종식을 위한 이란의 수정 제안을 "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"며 거부해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.
- 이에 따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 인도분은 2% 이상 오른 배럴당 $97.88를, 브렌트유 7월 인도분은 $103.93를 기록하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.



Brent crude prices this year

기사

WSJ: Think $6 Gas Is Bad? It's About to Get Even Worse in California
가주 가솔린 가격 6달러 16센트…향후에도 불확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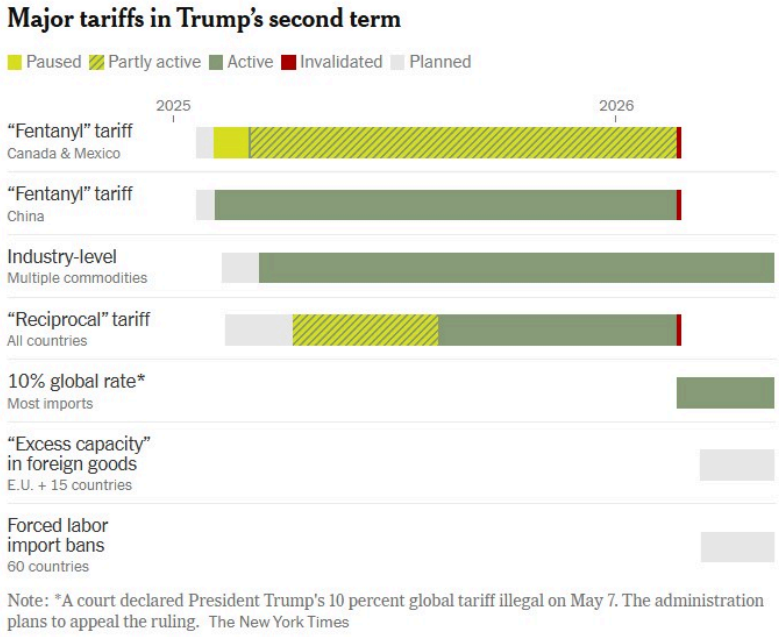
- 지난주 금요일 기준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$6.16를 기록했다. 디젤은 갤런당 $7.48로 미국 평균보다 약 $1.82 높았다.
-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의 원유 및 연료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(DPA)을 동원하고 존스법(미국 내 물류는 미국 배만 쓰라는 '자국 해운 산업 보호법')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했다.
- 한편 캘리포니아가 중동발 원유의 수입 물량을 받기 힘들어지고 있다. 이란과의 전쟁으로 전 세계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중동에서의 추가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결과다.

기사

[트럼프 관세]

NYT: For Trump, Court Loss Is Latest Twist in Ever-Shifting Tariffs
연방 정부 10% 보편 관세도 불법 판결…상호 관세 환급은 11일부터

-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관세 정책이 요동치고 있다. 2월 상호 관세에 이어 바로 최근 연방 무역법원이 트럼프 무역 전략의 핵심인 '전 세계 수입품 대상 10% 보편 관세'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.
- 현재 이 관세는 항소 절차와 함께 유지되고 있으나, 계속되는 법정 공방은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서 기업과 소비자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.
- 특히 지난해 '해방의 날(Liberation Day)'에 도입된 초고율 상호 관세들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, 정부는 징수한 관세 약 1천6백60억 달러를 환급하기 시작했다. 이르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첫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.



기사

[주택]

YahooFinance: US existing home sales increase less than expected in April
4월 기존 주택 판매, 예상보다 둔화

- 4월 기존 미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0.2% 증가한 402만 가구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인 405만 가구를 밑돌았다.
- 고공행진 중인 모기지 금리와 가계 재정을 압박하는 인플레이션이 주택 시장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.
- 낮은 소비자 신뢰도 속에서도 주택 구매 여건이 미세하게나마 개선되고 판매량이 소폭 상승했으나 향후 반등 여력은 불투명하다.

기사

[미중 관계]

YahooFinance: Trump heads to Beijing with tariff uncertainty, AI communication, and the Strait of Hormuz in focus
트럼프, 중국 방문해 관세와 호르무즈 개방 논의할 듯

-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관세, AI 소통, 이란 전쟁 내 중국의 역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.
- 백악관과 전문가들 모두 이번 회담에서 극적인 돌파구보다는 갈등을 관리하며 '싸우지 않는 것'을 실질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.
- 보잉 경영진이 동행하는 만큼 항공기 구매를 포함해 농업, 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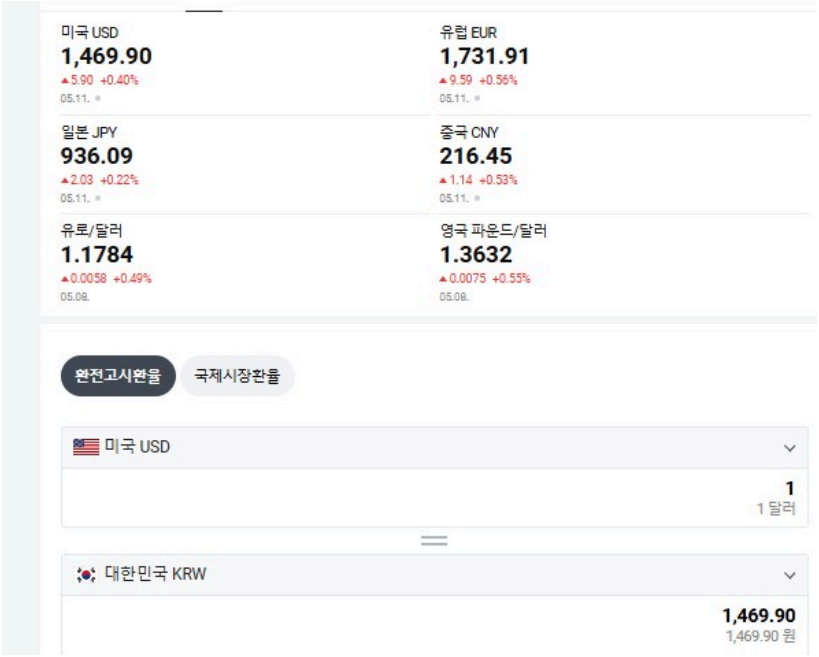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49,658.00	+49.0	+0.10%
US 500	7,421.90	+23.0	+0.31%
Dow Jones	49,645.24	+36.08	+0.07%
S&P 500	7,421.81	+22.88	+0.31%
Nasdaq	26,321.72	+74.64	+0.28%
S&P 500 VIX	17.95	+0.76	+4.42%
Dollar Index	97.757	-0.027	-0.03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4.75	-27/32	4.968	0.032
10-Year Note	4.125	-24/32	4.392	0.033
7-Year Note	4.125	-2/32	4.216	0.036
5-Year Note	3.875	-2/32	4.048	0.033
3-Year Note	3.875	-1/32	3.953	0.040
2-Year Note	3.75	-1/32	3.929	0.034
1-Year Bill	0	0/32	3.748	0.016
6-Month Bill	0	1/32	3.726	0.020
3-Month Bill	0	0/32	3.687	0.000
1-Month Bill	0	0/32	3.665	0.010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